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 연구*

A Study on Librarians' Perceptions of the Social Role of Libraries for Hikikomori

노 영 희 (Younghee Noh)**

강 정 아 (Jung-a Kang)***

< 목 차 >

I. 서 론	IV. 분석 결과
II. 선행연구	V. 논 의
III. 연구 방법	VI. 결론 및 제언

요 약: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고립 문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공공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지향점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사서의 인식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서의 인식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에 그치고 있었다. 역할을 위한 외부 지원으로 사회적 관심과 예산, 내부 지원으로는 대응 의식과 전문 인력 배치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증진을 위한 교육,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영역에 대한 인식의 확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전문적, 체계적 맞춤형 지원체계로서 서비스 개발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도서관, 사회적 역할, 사서 인식, 인식 조사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perception of public library librarians to propose the social role orientation of libraries for reclusive loner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vide education to promote awareness of the object, expand awareness of the service area of the library, and develop specialized services as a customized support system.

KEYWORDS: Hikikomori, Reclusive Loners, Libraries, Social Roles, Librarian Awareness, Perception Research

* 본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C2A02095114).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 ISNI 0000 0000 4120 5652) (제1저자)

*** 건국대학교 지식콘텐츠연구소 연구원(isori69@naver.com / ISNI 0000 0004 7422 3696) (교신저자)

• 논문접수: 2024년 11월 23일 • 최초심사: 2024년 12월 3일 • 게재확정: 2024년 12월 1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4), 49-71, 2024. <http://dx.doi.org/10.16981/kliss.55.4.202412.49>

* Copyright © 2024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은둔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립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은둔은 세상을 피해 제한된 장소에 계속 머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의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수년에 걸쳐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이 최대 54만 명이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연결 측면에서 고립·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 조례 제정, 실태조사 시행 등 사회적 약자로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서비스를 사회적 책임을 갖고 대응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런 정책적 접근은 2019년 광주광역시에 처음으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만든 이후 전국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은 앞다퉈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으로는 국가도서관위원회(2024) 발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 코로나19 이후 도래한 ‘뉴노멀 시대’ 대응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이러한 방향성에 근거해 ‘따뜻한 동행, 공동체 성장,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였는데, 그중 따뜻한 동행과 공동체 성장의 하나로 ‘연대·협력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이는 사회적 약자 및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 도서관의 새로운 역할 확립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할 것이다. 위 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해결에 대응하는 몇 가지 정책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서비스의 핵심과제 중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해 “(사회적 연결)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조성 및 위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보건복지부 『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2023~2027)』 연계)” 추진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도서관이 시대의 현실에 마주하며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역할 변화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용훈, 2024.10.17.).

국외 도서관의 경우 이미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 변화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바, 캐나다 도서관에는 간호사가 상주해서 약물 중독자에 대해 즉각적인 응급 지원을 하는, 그래서 약물 과다복용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사람을 살리는 도서관’이라는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에드먼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받은 생명의 수호자로 활동하며, 책 문화 공간을 넘어 사회적 위기 대응의 최전선으로 변모하고 있다 (뉴스1, 2024.9.27.). 또한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 관련해서는 영국에서는 2018년 ‘고독부’(차관급)을 설치하고 세계 최초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지역도서관이 주민들의 웰빙을 증진하며 외로움 감소에 유익하다는 발표를 한 바 있으며, 일본은 2021년 코로나19 계기 사회적

고립·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내각관방에 ‘고독·고립 대책담당실’을 설치하였다(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이러한 사례는 시민들이 가장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공공도서관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 고독, 고립·관계 단절에 의한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이 가지는 기본적 기능으로서 지식과 정보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까지도 감당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용훈(2024.10.17.)은 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며, 도서관은 시대의 근본 과제에 당당하게 맞서 해결책이 되어야 하며 지역과 주민들에게 든든한 어깨가 되어야 하고, 실질적인 사회 안전망으로까지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에서 제시하는 ‘연대·협력 플랫폼’으로서, 모든 공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공공도서관이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역할수행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를 위한 역할수행 방안 모색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선행연구

2000년대 초 이시형 박사의 연구팀이 청소년 시기에 대인공포나 자기혐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국내 최초로 보고한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지금도 은둔형 외톨이 관련 연구 및 사회적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며(윤철경, 서보람, 2020),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정책적·실천적 대안 마련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은둔형 외톨이 관련 도서관 연구는 정근하, 이상엽, 노영희 외(2021; 2022a; 2022b; 2024)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분야의 선행연구뿐만 아니라 기사, 칼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상희(2010)는 은둔형 외톨이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효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 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라는 개념의 구성과 변형 과정을 탐구, 은둔형 외톨이가 어떠한 경위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었으며,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박지선(2020)은 일본의 은둔형 외톨이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기를 경험한 일본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은둔형 외톨이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최근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분절 방식에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나가며,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일본의 경험이 한국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2021)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은둔형 외톨이를 대상으로 그들의 실제적인 경험을 살펴보는 것으로, 청년층에서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은둔생활이 지속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스스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한 채 은둔·고립 생활을 3개월 이상 지속한 경험이 있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현상학적 연구 방법에 따라 고립 청년 5명을 심층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은둔·고립 배경', '사회·심리적 고립',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라는 총 3개의 주제와 함께 하위 9개의 범주를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은둔·고립 경험을 기술하고, 고립 청년의 발생 및 이들의 은둔·고립 생활이 지속되는 이유를 사회구조적 맥락에서 고찰하여 이들을 지원하고 예방하기 위한 논의를 제공하였다.

김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그들 부모와의 심층 면담과 그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카페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심층 면담을 진행, 글의 내용과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20대, 남자, 만이, 대재 이상이 가장 많으며, 어린 시절 이사 또는 전학 경험이 많고, 심리적으로는 우울, 강박증, 대인 예민성에 시달리는 정도가 높았다. 은둔의 계기로는 대인관계 어려움과 학교 및 직장 부적응이 가장 높고, 은둔생활 동안에는 주로 부모와 생활하며, 대화상대가 없고,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며,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해나 가해 경험이 많지 않으나 개인차가 크고 충동적이고 방어적인 특징을 보였다. 과거 상담이나 치료의 경험이 많음에도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고, 과거와 현재 모두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신뢰와 지지 및 기다려줌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은둔형 외톨이 부모 역시 멘토링, 부모교육 등의 전문적 도움과 지원시스템 및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제희(2023)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과제-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학령기 청소년의 은둔으로 인한 문제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도 영향을 미쳐 가족의 큰 어려움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9-24세의 은둔형 청소년 중 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은둔형 외톨이의 발생과 장기화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과제를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과제로 첫째, 은둔형

외톨이로의 진행 단계를 고려한 지원, 둘째, 회기 제한이 없는 장기적인 가정 방문 서비스, 셋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전문 시스템 구축, 넷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족 지원, 다섯째,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양성, 여섯째,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법제화 및 실태조사 등을 제안하였다.

오영림(2023)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기의 은둔과 고립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정신적 어려움으로 은둔하기도 하고, 은둔하면서 정신적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므로, 은둔 초기에 정확히 원인은 파악하여야 하며, 전조 단계, 초기 단계, 고착 단계의 사정이 달라야 하며, 개입 방법의 차별화 되어야 하며, 은둔 청소년의 욕구 기반 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외 희망제작소 뉴스(2024.5.14.)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세상과 연결하다”, 단비뉴스(2022.8.29.) “게임과 잠으로 고립을 잇는 은둔 청년”, 웰로(2023.3.) 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나:옴’ 소식지에 소개된 “봉담읍의 한 작은도서관 이야기”, 하루결(2023.9.20.) 브런치스토리 “책 읽는 히키코모리”를 통해 실제 은둔형 외톨이의 도서관 방문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내일신문(2024.4.25.)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 실천 사례도 소개되고 있다.

위의 연구 내용들의 시사점은 첫째,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회적 약자의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 매개로 도서관의 역할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 많은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 시기가 청소년기로 보고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중 청소년으로 표적화된 전국 단위의 공식적 자료는 없으나 수치를 통해 많은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 예측되므로 이들 청소년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20대 은둔이 장기적 은둔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고립의 장기화는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각각의 계층이 가질 수 있는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맞춤형 지원체계에 대한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등 사회·제도적 관심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역 내 도서관 역할의 구체적 실행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다. 도서관은 단순한 현재 도서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전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접근성 향상 방안과 이를 통한 보편적 지식정보 접근 등 소외 없는 서비스 제공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와 복지 보호에 기여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 약자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연결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의 주체가 되어야 할 사서의 인식을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바,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중심의 공동체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수행 절차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의 전략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진행되었다. 사서 인식 조사를 위한 연구 절차로는 첫째,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도서관의 관계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사례를 조사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둘째,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 및 분석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1〉 참조).

단계	연구 내용
이론적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 관련 논문, 보고서 등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전반적 내용 조사·분석 • 은둔형 외톨이 현황 및 사례조사
↓	
설문지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연구 과정을 통해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지 개발 (김혜원, 2022;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오영립, 2023; 이 상희, 2010)
↓	
설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대상] 공공도서관 사서 • [설문 내용]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역할수행에 필요한 내·외부 요인, 서비스 운영 경험 등
↓	
설문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 조사 내용 분석 • 설문 결과 기반 시사점 도출
↓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 인식분석 결과를 통한 서비스 방향성 제안

〈그림 1〉 연구 방법 및 절차

2. 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방법

설문 문항은 관련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에 적합한 문항들로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5개 영역과 16개 문항으로 개발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본 설문의 문항 구성은 크게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 지원 요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경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표 1〉 참조). 설문은 2024년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총 23일간에 걸쳐 전국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설문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록된 기관 이메일을 통해 667부 배포되었으며 이 중 82부가 최종 회수되었다. 수집한 데이터의 통계분석을 위하여 E-STAT 3.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의 문항 각각에 대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표 1〉 설문지 내용과 문항 구성

구분	내용	척도
일반사항	성별, 연령, 근무 경력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도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3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징후(특성)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 및 지원기관으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적합 여부	6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보,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은둔형 외톨이의 심리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 여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도서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내·외부 영향 요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외부 지원 요인에 대한 적합도	2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수행에 필요한 내부 지원 요인에 대한 적합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서비스 운영 경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경험 유무	2
	제공했던 서비스의 사례	
	기타의견	1
	총계	17

IV. 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12명(14.63%), 여성 70명(80.95%)으로 나타나, 여성의 설문 참여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은 50대가 31명(37.80%), 40대 25명(30.49%), 30대 15명(18.29%), 20대 10명(12.20%), 60대 이상 1명(1.22%)의 순으로 나타나 이번 설문의 경우 50대의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응답자의 근무 경력은 5년 이상-10년 미만이 19명(23.17%)이 가장 높았으며, 20년 이상이 18명(21.95%), 15년 이상-20년 미만이 17명

(20.73%), 5년 미만과 10년 이상-15년 미만이 각 14명(17.07%) 순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징

항목		N	%
성별	남성	12	14.63
	여성	70	85.37
연령	20대	10	12.20
	30대	15	18.29
	40대	25	30.49
	50대	31	37.80
	60대 이상	1	1.22
	5년 미만	14	17.07
근무 경력	5년 이상-10년 미만	19	23.17
	10년 이상-15년 미만	14	17.07
	15년 이상-20년 미만	17	20.73
	20년 이상	18	21.95

2.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시행된 설문 중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징후(특성)가 어떠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 분석 결과, '알고 있다'가 81명(98.78%), '모른다'가 1명(1.22%)으로 나타나, 1명을 제외한 모든 응답자가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표 3〉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항목		N	%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	알고 있다.	81	98.78
	모른다.	1	1.22

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 원인과 특성(징후)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4.5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인의 정신 병리적·심리적 문제(우울증, 자기혐오 등)가 4.305, 가족 문제 4.22, 사회규범에 대한 스트레스와 진로 문제가 각각 4.061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기질적 성향 3.976 이 원인이라는 인식의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사서들은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이 사회관계 내에서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징후(특성)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은둔생활이 4.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사회부적응 4.439, 절망감과 무기력 4.427, 우울증 4.354, 대화의 부재 4.341, 인터넷 중독·의존증 4.268 순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외 요인으로 제시되었던 자기혐오 3.988, 학교폭력 피해 3.963, 잦은 지각 및 결석 3.598, 학습 부진 3.512로 각 요인의 평균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사서들은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징후(특성)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 은둔형 외톨이 현상의 발생 원인과 특성(징후)

항목		M	SD
은둔형 외톨이 현상 발생 원인	사회규범에 대한 스트레스	4.061	0.866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4.573	0.567
	학업 스트레스	3.878	0.852
	진로 문제	4.061	0.851
	가족 문제	4.22	0.786
	개인의 정신 병리적·심리적 문제(우울증, 자기혐오 등)	4.305	0.642
	기질적 성향	3.976	0.846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징후 (특성)	은둔생활	4.537	0.592
	절망감과 무기력	4.427	0.648
	자기혐오	3.988	0.896
	우울증	4.354	0.791
	대화의 부재	4.341	0.724
	사회부적응	4.439	0.739
	학습 부진	3.512	0.997
	학교폭력 피해	3.963	0.895
	잦은 지각 및 결석	3.598	0.914
	혼자만의 시간 증가	4.085	0.905
	인터넷중독·의존증	4.268	0.817

3.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를 위해 시행된 설문 중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은둔형 외톨이의 정보·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및 심리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어떠한지, 은둔형 외톨이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적합성 및 영향 정도, 서비스 필요성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평균이 3.744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정보,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3.378,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심리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3.341로 나타난 점으로 볼 때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사회적 교류, 심리적 지원에 크게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평균은 3.61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해 사서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 인식을 높게 갖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표 5〉 참조).

〈표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적합성 및 영향 정도, 서비스 필요성

항목	M	SD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의 적합성	3.744	0.966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정보, 사회적 교류에 미치는 영향	3.378	1.118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심리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	3.341	1.102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을 반영한 도서관 서비스 필요성	3.61	1.152

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 유형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5점 척도로 조사·분석한 결과,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이 3.7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표현과 창의적 활동 촉진 3.707,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 3.695, 사회적 재통합의 기회 제공 3.561,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3.47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5개 항목의 유형에 대해 모두 평균값 3.4~3.7로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 유형에 대해 사서들이 균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6〉 참조).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도서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독서치료나 독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 3.9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 제공과 다양한 정보자원과 학습 기회를 제공이 각각 3.915, 자립적인 정보 탐색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가 3.902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연결, 재사회

화, 사회적 활동 재개 등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보여준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이 3.768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사서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도서관이 수행할 서비스로, 심리적 지원을 위한 독서치료나 독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 제공과 다양한 정보자원과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립적 정보탐색 능력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적합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6>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 유형

항목		M	SD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사회적 재통합의 기회 제공	3.561	1.078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	3.768	0.947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	3.695	0.977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3.476	1.033
	자기표현과 창의적 활동 촉진	3.707	0.97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유형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개발·제공	3.585	1.03
	안전하고 개방적인 공간 제공	3.915	1.056
	심리적 안정 회복 및 치유 서비스 제공	3.683	1.143
	점진적으로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타인과 상호작용할 기회를 제공	3.854	1.124
	자기 계발과 학습을 통한 재사회화 지원 서비스	3.78	1.078
	다양한 정보자원과 학습 기회를 제공	3.915	0.892
	자립적인 정보 탐색 능력 향상을 위한 서비스	3.902	0.869
	독서치료나 독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3.988	0.949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회적 활동 재개 지원 서비스	3.598	1.098
	창의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646	0.998
	삶의 새로운 유형 이해를 위한 인식 교육 서비스	3.78	1.031
	예비 부모 교육	3.159	1.347

4.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의 필요 요인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원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외부 지원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예산지원이 4.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4.098,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4.012 순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기반으로 지속적 관심과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및 적극적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내부 지원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결과,

대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대응 의식이 4.0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 전담 인력 배치 3.939, 광역지자체 지원 협력 추진(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구축) 3.902, 연결 사회 지역거점으로서 사회화 지원을 위한 도서관 중심 공동체 교류 공간 조성 3.85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표 7〉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의 도서관 역할수행의 필요 요인

M	항목	M	SD
외부 지원 요인	관련 법률 제정 및 실태조사	3.61	1.086
	포괄적 지원정책 및 시스템 개발	3.866	1.015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예산지원	4.171	0.886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4.012	0.868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 시스템 구축	3.878	1.035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지원	3.963	0.999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 전문가 양성	3.927	0.94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4.098	0.855
내부 지원 요인	도서관 중심 사회적 약자 프렌들리 시행 방안 마련	3.78	1.031
	광역지자체 지원 협력 추진(지역 내 유관기관과 지원체계 구축)	3.902	0.897
	전문 전담 인력 배치	3.939	0.96
	대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인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대응 의식	4.049	0.874
	연결 사회 지역거점으로서 사회화 지원을 위한 도서관 중심 공동체 교류 공간 조성	3.854	1.02
	전문적, 체계적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운영 (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3.89	0.994
	가정과 연계한 아웃리치 서비스	3.671	1.043

5.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운영 경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서비스 제공 경험이 없다고 78명(95.12%)으로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다는 4명(4.88%)에 그쳐,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경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역할 제공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사서의 인식 등이 낮게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표 8〉 참조).

〈표 8〉 지역소멸 대응 기관으로서 도서관 서비스 제공 경험 유무

항목	N	%
서비스 제공 경험이 있다.	4	4.88
서비스 제공 경험이 없다.	78	95.12

이외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사례로는, 부부의 가정불화로 우울증을 겪는 60대 이용자를 환대 소통하며 심리 관련 도서들을 추천·제공하였으며, 매일 책 읽기와 기록을 할 수 있게 지원한 사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개인 공간 확보, 놀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드게임, 그림책 활용 프로그램 운영 사례 등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일시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장기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6. 도서관의 역할관점에서의 시사점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자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

첫째, 연구 결과 사서들은 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은 인식을 보였다. 특히,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정보 제공, 사회적 교류, 심리적 지원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인식이 컸다. 이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는데 있어 역할 인식의 부족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의 부족이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단순히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통합, 정서적 치유, 심리적 회복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나. 도서관 서비스의 제공 경험 부족

둘째, 조사 결과 도서관의 은둔형 외톨이 대상 서비스 제공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5% 이상이 도서관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점은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구체적인 실행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실행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자원의 부족이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도서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워크숍 등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다. 도서관의 역할 다각화와 전략적 접근 필요

셋째, 사서들은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정보 접근성 제공, 교육 기회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 자기 표현 및 창의적 활동 촉진 등의 측면에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도서관이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단기적인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재통합, 정서적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 내에서의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대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사회적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

라. 외부 및 내부 지원의 중요성

넷째,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부 지원과 내부 지원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지원,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는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부적으로는 전문 전담 인력 배치, 대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의식이 중요하다.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 친화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마.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장기적인 서비스 개발 필요

다섯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단기적이지 않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상, 이들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도서관은 단기적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사회적 복귀를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독서치료 프로그램, 사회적 연대를 촉진하는 활동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바. 은둔형 외톨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여섯째,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단독적인 도서관의 역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민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연구 결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한 외부 지원 요소로 언급되었듯이, 도서관은 지자체, 복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등과 협력하여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도서관은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과 이를 위한 서비스 제공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도서관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도서관은 단순한 정보 제공의 공간을 넘어, 사회적 통합, 심리적 회복, 사회적 연대 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 자원 확보,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수적이다. 또한, 외부 지원과 내부 협력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하며, 도서관은 이를 기반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V.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의 인식 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은둔형 외톨이 개념에 대한 이해정도에 비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가 보이는 대화와 참여를 거부하는 특성 때문에 정책적으로 다가서거나 지원하기 쉽지 않다는 일반적인 문제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2023년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연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이르고,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도서관의 역할로 은둔형 외톨이를 포함한 지식정보 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강화에 대한 정책 및 추진 과제 등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어떠한지, 역할수행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역할수행을 위해 내·외부 지원 요인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사서의 인식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논의 및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증진

은둔형 외톨이 개념에 대해 사서들은 이해가 있는 편이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사회적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하여 전체 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도서관은 모든 공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구이며, 이때 모든 공중에는 사회적 약자로서 은둔형 외톨이 또한 포함한다. 이런 맥락에서 도서관 사서들이 갖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은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증진의 중요한 기초 환경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의 개념에 대한 사서들의 이해와 관심은 좋은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개념적 이해와 달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둔형 외톨이 현상을 발생하는 원인과 특성이 일반적 사회현상과는 다른 원인의 다양성과 각 원인간의 영향관계 및 상관관계가 복잡한 특성(징후)으로 발현될 수 있고, 개인별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접근의 방식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사서들의 심적 부담감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김혜원(202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거와 현재 모두 주변사람들과 가족의 신뢰와 지지 및 기다려줄 것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었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부모 역시 멘토링, 부모교육 등의 전문적 도움과 지원시스템 및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용자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하여 사서뿐만 아니라 일반이용자들의 사회적 인식 증진을 위한 지속적 교육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인식증진의 결과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하여 사회전체가 관심을 갖고 이들의 사회적 연결을 위한 노력에 함께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확대에 기반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

2.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정립

최근 발표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은 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포용 실천과 공동체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구체적 추진 과제의 하나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결을 제시하며 첫째, 사회적 약자 프렌들리 서비스 발굴·시행을 위한 광역 대표도서관 중심의 협의체 구축·운영, 둘째, 도서관(공공·학교·대학) 통계조사 및 운영평가에 사회적 약자 프로그램 운영 적용 등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연결을 목표로, 첫째,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접근이 가능한 도서관의 시설/건물 설계를 통한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공동체 교류 공간조성, 둘째, 위기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청년을 위한 소통·교류, 디지털 교육, 중장년을 위한 독서치유, 인문 상담 등, 고령자를 위한 큰글자책 활용 프로그램, 치매예방 글쓰기 등) 지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보건복지부 「제1차고독사예방기본계획(2023~2027)」 연계)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문체부 중심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23-27)에서도 이미 '연결 사회 지역거점', '사회적 연결성 척도'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반영한 바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의 사서 인식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로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이, 서비스로는 독서치료나 독서 동아리 지원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모두의 도서관으로, 따뜻한 동행과 공동체 성장을 지향하는 도서관은 사회적 약자의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 매개로서 역할이 분명 필요한 시점이며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지식정보 취약계층으로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서관 중심의 공동체 교류를 지원함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한 실천 과제 탐구 및 지역도서관을 통한 실천 사례를 심도 있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한 도서관 환경 분석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차주환 외, 2023)에 의하면 은둔형 외톨이의 성공적 종결 여부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체계로,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관계경험’, ‘변화를 위한 마음준비’, ‘가족 관계 개선’, ‘외부활동 및 프로그램 등 참여’, ‘자기이해와 수용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필요서비스 제공’, ‘성공 경험’, ‘소통교류 기회 제공’ 등의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의 필요 요인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사서들은 외부지원 요인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내부지원 요인으로서는 은둔형 외톨이 대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인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대응 의식이 가장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전담인력 배치, 광역지자체 지원 협력 추진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볼 때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지원체계로는 지역사회, 가정 모두 은둔 인식이 필요하며, 학교-지역사회-가정이 모두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가 누락 되지 않도록 발굴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개인적 욕구 파악 및 희망서비스 즉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 특성을 고려한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 발굴 및 개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희망제작소 발행의 ‘은둔형 외톨이 청년을 세상과 연결하다’ 뉴스(2024.5.14.), 단비뉴스 발행의 ‘게임과 잠으로 고립을 잇는 은둔 청년’(2022.8.29.), 중부일보 발행의 ‘화성시 봉담읍의 한 작은도서관’(2024.10.13.), 하루결의 브런치스토리에 소개된 ‘책 읽는 히키코모리’(2023.9.20.) 등에서 보면 실제 은둔형 외톨이의 도서관 방문 사례 및 도서관의 책이 은둔형 외톨이를 밖으로

꺼내 주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내일신문 발행의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2024.4.25.)는 사회적 요구 등을 종합해 볼 때 은둔형 외톨이를 위해 실제 제공되는 서비스 사례 발굴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 또한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김혜원(2022)의 은둔형 외톨이 대상 심층면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은둔형 외톨이들은 과거와 현재 모두 주변 사람들과 가족의 신뢰와 지지 및 기다려줌을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여기고 있고, 은둔형 외톨이 부모 역시 멘토링, 부모교육 등의 전문적 도움과 지원시스템 및 정책을 가장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정근하, 노영희(2024)는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에게 사회적 재통합의 기회 제공, 정보 접근성 및 교육기회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자기표현과 창의적 활동 촉진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의 하나인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사례 발굴,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상담, 대상자 중심의 지속적 개입과 끊임없는 기다림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독서서비스, 사회연결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도서관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사회적 교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그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때 더불어 고려할 사항은 이러한 서비스가 단기적·일시적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모든 공중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도서관이 사회적 약자 서비스 확대 측면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역할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에 앞서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 사서들의 인식 조사를 시행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및 서비스의 지향점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이해 정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 역할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지원요인에 대한 인식,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서비스 운영 경험 등에 대한 사서의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도서관 사서 인식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둔형 외톨이는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고립과 세상일을 피해 제한된 장소에 계속 머물며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 개념에 대해서는 사서들의 이해가 있었다. 다만, 다만 개념적 이해와 달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대한 사서들의 인식은 크게 긍정

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는 일반적 사회현상과 달리 잘 드러나지 않아 실태 파악이 어렵고, 현황을 알더라도 대화나 참여를 거부하는 특성을 보인다는 어려움에서 기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은둔형 외톨이의 고립과 은둔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자 연구 수행을 토대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이루어지고, 그들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은둔형 외톨이의 현황과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에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데 반해 사서들의 인식에서 나타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차 도서관발전종합 계획에서도 사회적 약자의 고립·단절 해소를 위한 사회적 연결 매개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제 도서관의 책이 은둔형 외톨이를 밖으로 꺼내 주었다는 기사 등이 소개되는 것으로 볼 때,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은둔형 외톨이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이 어떠한지 할지에 대한 정립은 매우 중요하다. 즉 은둔형 외톨이가 가지는 고립과 은둔의 특성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 내에서 해결해야 할 개인적 욕구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지원의 효과가 어떠한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례조사 등을 토대로 특별한 삶의 방식을 가진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은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서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에 필요한 외부지원 요인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현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예산지원,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내부지원 요인으로 은둔형 외톨이 대상에 대한 이해 및 문제 인식,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대응 의식, 전문 전담인력 배치, 광역지자체 지원 협력 추진 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들의 가족 특성을 고려한 발굴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한 통합적 관리가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학교-지역사회-가정이 모두 연계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은둔 인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 은둔형 외톨이의 개인적 욕구 파악 및 희망 서비스 즉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가정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 요인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수행을 위한 정책 및 전략 수립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넷째, 현재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 서비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서비스 개발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현재 은둔형 외톨이의 시작 시기를 청소년기로 보고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기에 시작된 은둔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고립의 장기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등 각각의 계층이

가질 수 있는 은둔형 외톨이 원인분석 및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적, 체계적 맞춤형 지원체계로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서관이 중요한 사회적 자원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정보, 사회적 교류,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례를 볼 때, 단기적·일시적 제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 재통합의 기회 제공, 정보 접근성 및 교육 기회 제공, 정서적 안정 및 심리적 치유,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자기표현과 창의적 활동 촉진 등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사서 인식을 조사한 첫 번째 연구이므로 이를 토대로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에 기여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 은둔형 외톨이 대상 및 원인, 현상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 도서관을 통한 사회적 연결 성공 사례조사 등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본 연구의 설문은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포괄적인 인식 조사이고 설문 집단의 크기가 크지 않으므로 연구 성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를 위한 도서관의 정체성을 담은 서비스 개발·운영하고 그 실증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연결을 지원하는 중요한 지역자원으로서 도서관의 사회적 가치를 향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 국가도서관위원회 (2024).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24-2028)』.
- 김제희 (20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현황과 지원과제 - 학령기에 은둔을 시작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DOI: 10.21509/KJYS.2022.10.29.10.1
- 내일신문 (2024. 4. 25.). 도서관에서 사회적 연결, 도서관이 지닌 포용성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출처: <https://www.naeil.com/news/read/508546?ref=naver>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뉴스1 (2024. 9. 27.). 캐나다 약물 중독자, 병원 대신 책으로 가득한 '이곳'에 모인다[통신One].
출처: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53141>
- 단비뉴스 (2022. 8. 29.). 게임과 잠으로 고립을 잇는 은둔 청년. 출처: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5>

- 박지선 (2020).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 고찰과 한국에의 시사점. *사회적질연구*, 4(2), 19-45.
- 보건복지부 (2023). 고립·은둔 청년, 이제 국가가 돕겠습니다. 출처:
<https://www.nypi.re.kr/atchfile/prevealAtchfile.do?vchkcode=wVO6au112Mj8>
- 오영림 (20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기의 은둔과 고립 지원을 위한 방안모색.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 윤철경, 서보람 (2020).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제도적 지원의 정립. 서울시 은둔형 외톨이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2020.8.25.).
- 웰로 (2023). 화성시 은둔형 외톨이 전문상담센터 ‘나:움’. 화성시 소식지 ‘희망화성’. 2023년 3월호. 출처: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c54837b0-1f88-4e0d-b0a0-422c92d62c0d>
- 이상희 (2010). 은둔형 외톨이 개념의 사회적 구성과 효과. *사회학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이용훈 (2024. 10. 17.). [이용훈의 도서관통신56.]시대와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서관 활동이 필요하다. *한국독서교육신문*, 출처: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9>
- 정근하, 노영희 (2022a).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229-250.
- 정근하, 노영희 (2022b).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실태 파악의 어려움과 그 해결방안. *한국비교정부학보*, 26(2), 137-158.
- 정근하, 노영희 (2024). 지방소멸 시대와 은둔형 외톨이. 충주: 지식콘텐츠연구소.
- 정근하, 이상엽, 노영희 (2021). 은둔형 외톨이 극복자들의 활동 확대를 통한 지방소멸 방지 방안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5(2), 141-165.
- 차주환, 백정원, 편여울강, 어혜원, 이자영, 전미진 (2023).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44. 2023. 사회복지 공동학술대회.
- 하루걸 (2023. 9. 20.). 책 읽는 히키코모리. 브런치스토리. 출처: <https://brunch.co.kr/@harugyel/274>
- 희망제작소 (2024. 5. 14.). 은둔형외톨이 청년을 세상과 연결하다. 출처:
<https://www.makehope.org/%EC%9D%80%EB%91%94%ED%98%95%EC%99%B8%ED%86%A8%EC%9D%B4-%EC%B2%AD%EB%85%84%EC%9D%84-%EC%84%B8%EC%83%81%EA%B3%BC-%EC%97%B0%EA%B2%B0%ED%95%98%EB%8B%A4/>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 Joo-hwan, Baek, Jung-won, Pyeonyeougang, Euh, Hye-won, Lee, Ja-young, & Jeon, Mi-jin (2023). Research on finding and supporting youth who are isolated. Youth Counseling Research 244. 2023. Joint Academic Conference on Social Welfare.
- Danbi News (2022, August 29). A reclusive young man who forgets isolation through games and sleep. Available: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185>
- Haru-yul (2023, September 20). Hikikomori reading books. Brunch Story. Available:
<https://brunch.co.kr/@harugyel/274>
- Hope Factory (2024, May 14). Connect a reclusive loner young man with the world. Available:
<https://www.makehope.org/%EC%9D%80%EB%91%94%ED%98%95%EC%99%B8%ED%86%A8%EC%9D%B4-%EC%B2%AD%EB%85%84%EC%9D%84-%EC%84%B8%EC%83%81%EA%B3%BC-%EC%97%B0%EA%B2%B0%ED%95%98%EB%8B%A4/>
- Jeong, Geun-ha, Lee, Sang-yeop, & Noh, Young-hee (2021). Research on measures to prevent local extinction through expansion of activities of hikikomori overcomers.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5(2), 141-165.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a). A study on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Hikikomori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6(1), 229-250.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2b). The difficulty of identifying the status of hikikomori and its solutions in Korean society. Journal of Comparative Government of Korea, 26(2), 137-158.
- Jeong, Geun-ha & Noh, Young-hee (2024). Age of Local Extinction and Reclusive Loner. Chungju: Knowledge Content Research Institute.
- Kim, Hyewon (2022). Analyses on the characteristics and specific experiences among korean hikikomori. 29(10), 1-32. DOI: 10.21509/KJYS.2022.10.29.10.1
- Kim, Je-hee (2023). Current Status and Support Tasks of Reclusive Loner Adolescents: Focusing on Adolescents who began Seclusion in School Age. Korean Societ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Korean Societ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Autumn Conference.

- Lee, Sang-hee (2010). Social Composi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oncept of Reclusive Loner. A Master's thesis in sociology, Graduate School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e, Yong-hoon (2024, October 17). [Lee Yonghoon's library communication 56.] Library activities are needed to respond to the problems of the times and society. Korean Reading Education Newspaper. Available:
<https://www.reading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4149>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Isolated and sheltered youth, now the state will help. Available:
<https://www.nypi.re.kr/atchfile/prevealAtchfile.do?vchkcode=wVO6au112Mj8>
- National Library Commission (2024). 『4th Comprehensive Library Development Plan (2024-2028)』. News 1 (2024, September 27). Canadian drug addict gathers in 'here' full of books instead of hospitals [Correspondence One]. Available:
<https://www.news1.kr/world/usa-canada/5553141>
- Noh, Ga-bin, Lee, So-min, & Kim, Je-hee (2021). Analysis of the experiences and causes of young reclusive loner. Korean Social Welfare, 73(2), 57-81.
- Oh, Young-rim (2023). A reclusive loner looking for ways to support seclusion and isolation in adolescence. Korean Societ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Autumn Conference of the Korean Society of Mental Health and Social Welfare.
- Park, Ji-sun (2020). A review of japan's hikikomori support system and implications for korea. A Study on Social Quality, 4(2), 19-45.
- Tomorrow Newspape (2024, April 25). Social connection in the library, "resolving social isolation with the inclusiveness of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naeil.com/news/read/508546?ref=naver>
- Wello (2023). Hwaseong City reclusive loner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Me: Om'. Hwaseong City newsletter 'Hope Hwaseong' March 2023 issue. Available:
<https://www.welfarehello.com/community/hometownNews/c54837b0-1f88-4e0d-b0a0-422c92d62c0d>
- Yoon, Chul-kyung & Seo, Bo-ram (2020). The status of reclusive loner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Debate on the status of reclusive loner and support plan (2020.8.25.).

